

## '23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9.20	회의실	9/13	4	1	14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곽선희·김안나·김영신·송경용·오광호·이상길·이숙희·조경완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1	1	1	10	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0	0	10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보상, 정부의 의지와 지원, 국회의 어민 보장을 위한 특별법, 수산물 이력제, 급식 등 대책에 관한 관심 필요	라디오 <6시 뉴스> 전남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안전’(9.27), <뉴스투데이> 축정기 ‘실효성 논란’(9.22), 제주 찾은 일본 업체 (9.22) 등 보도 조치	’23.9.
”	<시사인터뷰 오늘>, 경제, 문화, 예술 분야의 인터뷰나 식견을 넓히는 관련 내용 확대 바람	<시사인터뷰 오늘> GGM 2년 만에 10만대 생산(10.12), 한글날의 의미와 가치(10.9), 창업&취업, 한 주 스포츠 브리핑 등 다양한 분야 내용 방송 조치	”
”	과학기술 인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에너지공과대학을 잘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관심 바람	<뉴스투데이> 한전, 제2의 창사 다짐했지만(10.13), <뉴스데스크> 에너지공대 사면초가, 감사에 수사까지?(10.11) 등 보도 조치	”
”	지역 대학, 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 조성에 관심 필요	<뉴스투데이> 순천대, 막바지 총력(10.10), 한국형 디즈니 나오나(10.9), <뉴스데스크> 클러스터 개발 지지부진..방법 있나?(9.21),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10년 전 분양했는데 ‘탕’(9.19) 등 보도 조치	”
”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관심 바람	<뉴스데스크> 광주시립점자도서관 개관식(9.26), <뉴스투데이> 장애인은 위험한 장애인 주차구역(9.18) 등 보도 조치	”
”	시사 토론프로그램에서는 사회 각층에 문젯거리가 되는 이슈들을 다양하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9.25)	”

	다루어 주길 바람		
"	항저우아시안게임 광주시 선수들을 알려 광주시민에게 자긍심 심어주는 계기 바람	<뉴스투데이> 근대5종 간판 전웅태 를 만나다(10.10), 광주광역시 선수 단 잇단 항저우 승전보(10.5), 광주 시 소속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 임 2연패(9.26), 대한민국 종합 3위, 광주 선수단도 맹활약(10.9), <뉴스 데스크> 담양군청 이계림 전남 선수 중 항저우AG 첫 메달(9.27) 등 보 도 조치	
교양	<본방을 보자>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 키는 방법, 영상이 조금은 작위적인 느낌, 진행자 진행이 너무 가벼워 아 쉬움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 치(9.25)	"
연예·오 락	광주 버스킹 월드컵의 홍보가 더 되어 서 광주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공연 을 관람할 기회가 되길 바람	<뉴스데스크> 제2회 광주버스킹월 드컵 내일 개최(10.2), 버스킹 월드 컵 예고 상시 송출 조치	"
기타	한글날을 맞아 텔레비전 자막에 광주 문화방송 한글 표기 바람	광주문화방송 한글 사명 훈민정음체 멋글씨 자막 송출(10.1~현재) 조치	"
총 건수		10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보상, 정부의 의지와 지원, 국회의 어민 보장을 위한 특별법, 수산물 이력제, 급식 등 대책에 관한 관심 필요(곽선희)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대책 촉구 등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을 활용해 적극 보도할 예정임	○		
"	<시사인터뷰 오늘>, 경제, 문화, 예술 분야의 인터뷰나 식견을 넓히는 관련 내용 확대 바람(강필오)	<시사인터뷰 오늘>과 <뉴스텐바이>에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모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진행하겠음	○		
"	과학기술 인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잘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관심 바람(이숙희)	김동철 신임 사장이 에너지공대 육성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뉴스를 제작하겠음	○		
"	지역 대학, 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 조성에 관심 필요(송경용)	지역 대학이 진행하는 지역 상생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보도 이어가겠음	○		
"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관심 바람(송경용)	장애인 이동권과 복지 문제는 제보나 기획 보도를 통해 지속적 관심 가지고 뉴스 제작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	시사 토론프로그램에서는 사회 각층에 문젯거리가 되는 이슈들을 다양하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다루어 주길 바람(김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 주제를 발굴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어젠다를 설정해나가겠음	○		
"	항저우아시안게임 광주시 선수들을 알려 광주시민에게 자긍심 심어주는 계기 바람(강필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포함해 체육 분야의 이슈가 잘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본방을 보자>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영상이 조금은 작위적인 느낌, 진행자 진행이 너무 가벼워 아쉬움(이상길)	제작 시에 더욱 유념하겠음	○		
연예·오락	광주 버스킹 월드컵의 홍보가 더 되어서 광주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되길 바람(김영신)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타	한글날을 맞아 텔레비전 자막에 광주문화방송 한글 표기 바람(김안나)	방송 자막을 송출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9월)

일 시	2023. 9. 20.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곽선희, 김안나, 김영신, 송경용, 오광호, 이상길, 이숙희, 조경완(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연말에 대형 이벤트도 많고 해서 준비하려면 9월이 바쁠 것이다. 시청자위원회도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으면 회의가 아니어도 카톡이나 전화로 전달해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념으로 양분돼 있다.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은 받아들였다. 공영방송 MBC의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시련이 될 수도 있다. 광주MBC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잘해왔다. 경영도 그렇고 보도, 프로그램도 좋아 사랑을 받아왔다. 사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9월이다. 다시 만나 뵈게 돼 반갑다. 무엇보다 MBC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문화방송이 있다.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 중인 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1월에 열리는 김치 프로젝트는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번도 안 해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첫걸음마여서 힘든 것도 있지만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다.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22명이 김장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하고, 공연, 이벤트, 쇼핑,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22개 시군 특산물 전시, 김치와 관련된 음식을 드시고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댄서 윤전일 광주공연 녹화가 오늘 있으며, 김정호가요제는 10월 20일 공개홀에서 열린다. 16개 지역 MBC 공동 기획 <우리는 지역에 살아요> 광주 편을 제작하고, 특집 ACC와 함께하는 <본방을 보자>는 어제 방송을 했다. <테마기행 길> 담양 편,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 속의 마한>, <문화콘서트 난장> 동구 버스킹, 무등산지오마라톤대회가 10월에 예정돼 있다.
- 조경완 : -김정호 가요제는 원래 광주MBC가 했었나?
- 이승철 : -오랫동안 해왔다. 총장축제와는 별개로 이번에는 공개홀에서 한다.
- 이계상 : -공동 제작 토론 <시사 용광로>가 주간 편성으로 변경됐다. 매일 한 차례 편성되던 <시사 용광로>를 매주 목요일 21시로 고정 편성한 것이다. 논쟁적인 이슈 선정을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행자로 호남대학교 한선 교수가 맡고 있다. 지역 MBC 보도 정보시스템 '마스엘'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과 지역MBC가 동일한 보도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서울MBC 지원받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반대 여론을 집중보도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어민 등 지역민 반발을 비롯해 <시사 용광로> 시간에도 오염수 해양 투기 부당성 등을 중점 토론했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자가 9만 5천 명을 돌파했고, 10월 안에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MBC 뉴스 채널에 광주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하고 숏츠 제작도 다양화 하고 있다. 주요 계획으로는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 관련 뉴스와 정가 분위기 중점 보도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전후해 광주, 전남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고, 올해 말에는 내년 총선 구도 파악을 위해 여론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10월 말에 방송할 창사 59주년 특별 기획으로 <K푸드, 김치의 가능성은?>에서는 김치의 산업화 세계화 가능성과 K푸드 인기에 힘입어 K김치의 세계화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 강필오 위원 : -9월 7일 <본방을 보자>에서는 뉴스본방, 줌인 노래방,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의 순서로 방송됐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코너에서 무도경호학과, 주짓수, 안심보안관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내용이 방송되었으며, 스스로 지키는 방법부터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9월 14일 <문화콘서트 난장>은 현재 활동이 뜸한 플라워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5.18민주광장에서 무대를 꾸민 점이 인상 깊었다. 9월 7일 <시사인인터뷰 오늘>에는 배드민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안세영 선수를 소개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천재성이라는 주제로 광주체고 배드민턴 김명자 감독님이 출연했다. 세계 1위에 등극한 안세영 선수의 장점과 훈련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최근 정치 관련 인터뷰가 주를 이뤘던 거 같은데 우리 시를 빛내주고 있는 스포츠 스타의 기분 좋은 소식을 나눠줘서 좋았다. 제19회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다. 45개국 40개 종목, 482개 경기를 치르는 아시안게임에 근대5종 전용태 선수 등 12종목 19명의 우리 시 선수들이 참가하고, 야구 이의리 선수 등 2종목 4명의 프로선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등 8종목 16명의 우리 시 출신 선수들이 참가한다. <시사인인터뷰 오늘>에서 방송된 것처럼 선수들을 지도했던 지도자 등의 출연으로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시 선수들을 알려 광주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감동을 선사해 주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분야의 인터뷰나 식견을 넓히는 관련 코너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 김영신 위원 : -<문화콘서트 난장>은 광주MBC가 자체 제작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광주 동구와 협업하여 광주 동구에서 주최하는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행사와 함께 '난장 X 광주동구버스킹'이라는 주제로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야외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라인업이 기존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에서 정동하, 홍경민, 플라워 고유진 등과 같이 대중적인 아티스트도 다소 대중적인 모습으로 변경됐으며, 이와 함께 광주시민의 호응 역시 높아지고 있다. 광주 동구에서 주최하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광주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음악 축제로, 전 세계의 버스킹 그룹 약 792팀이 2023년 4월경 예선을 거쳐 이 중 약 60개 팀이 올 10월에 결선을 앞두고 있다. 총상금만 1억 원에 달할 정도이니 상금으로 미루어 보아 대회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년 넘게 프로그램 MC를 보고 있는 유채훈의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주 버스킹 월드컵의 홍보가 조금 더 되어서 광주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이상길 위원 : -<본방을 보자> 중 무차별 혐기 난동 대처 방법을 봤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묻지마 및 무차별 혐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다수가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하였다고 본다. 경호학과 교수를 통하여 삼단봉과 스프레이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시청자와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짓수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어 대단히 뜻깊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안심보안관 제도 및 동행 보호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일반시민이 이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방송이었다. 영상이 조금은 작위적인 느낌이 있었고, 진행자의 진행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 있었다.
- 이숙희 위원 : -9월 7일 <시사 용광로> 주제가 주는 압박과 무게에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나라를 위한다는 대명제는 같은데, 보는 시청자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굴곡진 역사의 뒤편길에 '공'과 '과'는 인정하면서, 극명하게 갈리는 대화가 안타깝고 답답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심의 세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공부했던 한국을 빛낸 위인 중에 엇갈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계속 소모전을 반복할 것인가?

역사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가? 그들은 종합적으로 보고, 기록할 책무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한 일을 후세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천하의 수많은 실패는 한순간에 만들어졌다. 운명은 후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부디 후회하는 결정이 되지 않도록 이데올로기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거라 사료된다.

-‘조선대, 30분 이내 출차 차량 통행료 900원 징수 논란’ 뉴스를 봤다. 사립학교는 사적 영역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이므로 더 멀리 보아야 할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지식의 요람이며, 광주시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조선대학교에서 선제적으로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공사 기간에 학교를 개방한다고 선포하였더라면 어땠을까? 지하철이 완공되면 최대혜택을 받는 것은 조선대학교다. 그 후 모습은 도로 폐쇄로 인한 쓸쓸함이 더욱 큰 여운으로 남는다. 여러 사정이야 있겠지만, 교육은 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안녕과 미래를 위한 세대들에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관심과 실천을 바란다.

-‘과학기술인력 무더기 유출’ 뉴스에서는 KENTECH 관계자 인터뷰를 했다. 최근 들어 각 언론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주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생존에 관한 기사들이다. KENTECH은 세계 에너지 석학들이 모여있는 특수대학이다. 에너지 관련 기술은 향후 탄소배출과 연결되어 있어 인류의 지속 생존에 관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에너지 공과대학이 건강해야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다각적 방법을 찾아 현장에 빠르게 실증을 통한 기술의 고도화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분산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입법 통과되었다. 에너지정책에 제때 기술인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우리에게 기술만이 살길이며, 그 기술들이 잘 관리되어 고도화되어야 향후 우리 에너지기술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표준화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세계 에너지기술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과학기술 인력을 지켜야 할 이유다. 에너지공과대학을 잘 지원하고 육성해서 우리 기술이 글로벌 분산전원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참고적인 수치로 500개 목표에 612개 정도 협약을 했고 322개 중 실제 투자 267개가 가동 중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R&D가 거의 중단되면서 대부분 기업연구소와 전문연구소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문가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 송경용 위원 : -광주교도소에 면회를 간 적이 있다. 잘 모르는 곳이니까 미리 가서 절차를 밟았는데 안에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다. 많은 사람이 오는데 자판기 하나 없다. 30명 정도 면회를 위해 와서 앉아 있는데 공공기관인데 이런 편의시설이 없어 아쉬웠다. 칭찬하는 방송이 많았으면 좋겠다. 어느 자리에서 좋은 정책 제안 좀 하세요, 했더니 그러면 기사가 안 나온다고 한다. 자극적인 것을 해야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정치인들이 자극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방송이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할 것이다. 지역인재를 키우는 풍토가 돼야 한다. 지역 대학, 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문화를 방송이 만들어 갔으면 한다.

-<본방을 보자> ‘광주 여행, 어디부터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편을 봤다. 잠깐 시간이 비는데 그냥 보내기 아쉬운 사람들을 위한 쇼츠 여행을 소개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피크닉세트 대여 및 관광지에서 야외방 탈출 등 MZ세대들이 열광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요즘 뜨고 있는 쇼츠 여행은 2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패키지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노잼 도시로 유명한 광주를 관광지로 유치하려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노력이 한 눈에 보이는 사업인 거 같아 좋았다.

-<광주MBC 뉴스투데이> “화장실 들어가지도 못해요”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을 지적했다. 장애인들도 공원 등에서 산책할 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공원 내 공용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목포의 사례를 들었는데,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에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별로 없다. 언제쯤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광주시 또 다른 지역들 또한 보도블록 의무 설치, 장애인 화



장실 설치, 내리막길 설치, 버스 또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탈 수 있게 변화하면 좋겠다.

- 오광호 위원 : -<시사 ON>에서는 무너지는 교권 회복 방안은 없나?를 주제로 방송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교권 문제들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시사 ON>의 패널들이 생각하는 교권이란 '1. 교육을 할 권리, 2. 존중받을 권리, 3. 학생들을 사랑할 권리'라고 하는데, 반대로 학생으로서도 교육받을 권리, 존중할 권리, 사랑받을 권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교사와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다고 본다. 전교조 광주지부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우선 해결 과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권 보호)'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 경감'이 많은 응답을 보였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사랑해주어야 할 교사들이 다른 업무와 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추가로, 미국의 교권을 다루는 모습을 직접 영상을 통해 보여주어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배우도 바뀌어야 할 모습도 많다고 느꼈다.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사생활 정보는 절대 안내하지 않으며, 오직 학교 전화와 이메일만으로 연락할 수 있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교사가 따로 있는 점 또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모습이라 느꼈다. 지금 수많은 교사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장 제도가 마련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국을 보자> 9월 14일 방송에서는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과 관련하여 여객열차뿐 아니라 화물 열차의 운행도 대폭 감소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평상시 대비 62% 감축될 예정이라 정부 대응 계획으로 고속 및 시외버스 추가 배차, 지하철 최대 증편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이동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길 바란다. 광주 건축물 내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데 반해, 전남의 건축물 내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전남에는 농어촌지역의 민간 주택들이 많은데 이곳들의 내진 사업 보강사업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은 20%에 미치고 있어 추가 지원책이 필요할 듯 보인다. 본격 초대석 '만나본방' 코너에서는 공연기획 및 안무가가 직접 나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공연을 소개해 주었는데, 단순 홍보보다는 공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의미를 들을 수 있어 공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다. 또한, 시청자 대상 티켓 이벤트를 진행한 점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높일 수 있어 좋았다.

- 김안나 위원 : -<시사 ON> 203회, 205회를 시청했다. 무너지가는 교권과 과잉 민원 예방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함으로써 문제 해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좋은 토론이었다. 198회 광주비엔날레의 활성화화를 위해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거 같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오염수 문제나 사회 각층에 문젯거리가 되는 이슈들을 다양하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 박선희 부위원장 : -<시사 온>에서는 기후위기 내용을 다뤘다. 앞으로는 폭염, 산불, 극한호우, 태풍 등 기후변화가 심해질 것이며, 기후 전환이 일상화가 되었다. 자연 기반 해법 등으로 문제점 해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필요하며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자립도시 2045년 달성 목표를 세운 만큼, 광주시와 시민 사회 등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상적 기후로 인한 폭염과 장마 등으로 9, 10월까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 올라가면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추석 전 태풍이 시작된 시점인 것 같다. 태풍의 위력이 점점 세어진 만큼 피해에 관한 연구 및 실행은 더욱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문자 등은 시민들 피로감 높이므로 경보 체제도 손볼 필요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늘막도 필요한데 자동차의 시야가 가린다는 이유로 제거하는 등 대책 없는 실행이 아닌 이상기후로 인한 기존 지원책에 덧붙여, 저지대 확대 지원 등 사회적 문제에 더욱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김광훈 기후위기 집행위원장의 생활 속 복장 등 폭염에 대비한 실천하는 모습과 중장기적으로 녹지 공간 확보와 공원 조성, 가로수 더 필요하다는 패널들의 의견에 공감되었다. 좀 더 강해진 기후위기의 전체적 싸이클을 보면서 에너지 복원, 하천 정비 등 세밀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과 기후위기 연구 및 자연 기반을 토대로 한

투자와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생태 문화 복원은 필요하다 하겠다. 패널들의 대화 시에 계속된 어두운 화면이 답답했지만, 가끔 적절한 화면이 비추어질 때는 시각적 안정감 느껴졌다.

-<시사 용광로>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개시 파장과 대책은?을 주제로 했다. 일본 자국민도 반대하는 해양 방류강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돼 암담하였다. <시사 온>이 <시사 용광로> 바뀌면서 화면이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들었다.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의 러시아 방류 때 많은 반대를 하는 일본의 내로남불을 전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에 어이없었다. 바다는 연결되어있고 어류는 빠른 속도로 전 바다를 헤엄 치며 움직이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바다 오염을 더욱 반대하는 이유일 것이다.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에 신뢰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워 문제없다는 정부 논리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어민들에 대한 보상, 향후 발생할 피해 보상 등 확대 필요하며 정부의 의지와 지원, 국회의 어민 보장을 위한 특별법, 수산물 이력제, 급식 등에 대한 빠른 대책 필요하다 하겠다.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두렵다.

-9월14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8개월 안착하고 있나? 편도 관심이 있었다.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고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시행하게 된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생소하다는 의견과 공무원들의 실적 제출 요구하는 부작용 및 개인만 가능하다는 제도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다. 납세자 기부 연령대가 30대가 가장 높고 40대 50대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기부액 10만 원이 75%로 나타난 만큼, 답례품 활성화와 과도한 홍보 규제가 아닌 홍보 허락과 지역의 특별홍보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1인당 500만 원까지,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만큼 앞으로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할 것 같다. 국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기부 방법이나 형식에 대한 이해와 내용 등 자세한 안내와 상한제 폐지, 개인 단체, 기부 허용과 세액 공제 금액을 올려주어, 세금혜택뿐 아니라 30% 고향 특산물 선물도 받는다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 복잡한 기부 절차개선을 위한 시스템 정비, 기부 절차 간소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기부, 간편 인증 등 기부 절차의 제도 개선과 지정 기부를 통한 지역 상품 개발도 꼭 필요한 것 같다. 패널들 토론 시 화면에 기부 방법과 기부 금액, 세액 공제 등 세금혜택 부분 띄워주어 이해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 조경완 위원장 : -정율성동요제는 예정대로 진행하는가?
- 김낙곤 사장 : -정율성은 한중 우호 협력의 상징이다. 중국인이 추앙하는 음악인이고, 10년 전부터 동요대회를 해왔는데 올해는 취소하게 됐다.
- 조경완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 9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